

경제

■ 오늘부터 '타임오프제' 시행 ... 광주·전남 주요 사업장은

곳곳 총파업 배수진...갈등 고조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제한도)를 놓고 광주·전남 주요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파업을 결의한 기업주와 노조가 거리투쟁에 나서고, 순천 현대하이스코는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 노사협상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을 신청, 파업을 예고했다.

기차차 특별교섭 무산...노조 전임자 무급휴직

현대삼호중·전대병원 노조도 파업 수순 밟아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노동청과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타임오프제 시행과 맞물려 광주·전남 주요 사업장 노조가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차차 노조는 이날 오후 제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사측이 제안한 타임오프 관련 특별단체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또 6월에 이어

7월에도 주말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거리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25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65.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기차차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2일 소하리공장에서 전임자 급여 및 타임오프제 관련 제반 사항을 논의

하는 특별단체교섭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노조는 단협 중 특정조항(타임오프)만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측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 218명을 1일자로 무급휴직 처리할 방침이다.

사측은 최근 7월 1일 이후 현재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으로 처리돼 학자금·경조금·병원비를 제외한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었다.

순천 현대하이스코 노조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지역 대규모 사업장 최초로 지난달 30일 총파업을 계획했다가 유보했다. 노사협상에서 '임·단협 체결때까지 전임자·교섭위원·임시상근자 수를 유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노조는 지난 21~2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93.37%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목포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도 지난달 30일 쟁대위를 구성하고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오는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과 기독교병원 노조도 최근 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내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현 집행부와 강경파 노조원간 노노갈등으로 타임오프 관련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은 1일부터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에 어긋나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위반 사업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차세대 고속열차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2010 국토해양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최고시속 400km 동력분산형 고속열차(HEMU-400X)의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중인 이 열차는 2017년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B등급 건설사도 안전 장담 못한다"

채권은행 신용평가 대상 128개사 상당수 자금난

채권은행들이 최근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옥석 가리를 마무리했지만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B등급을 받은 업체들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최근 시공순위 30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 중 세부평가 대상 144개 업체 가운데 C등급(워크아웃 대상) 9

개, D등급(기업회생절차) 7개 등 모두 16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골라냈다. 나머지 128개 업체에는 A등급(정상기업) 또는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매겼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는 A등급으로 분류됐다"면서도 "C와 D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B등급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는 B등급도 결코 구조조정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에도 B등급을 받았던 신창건설과 현진이 기업개

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올해 3월에는 B등급이던 성원건설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진 업체들이 여럿 있어 이번에는 미래 현금흐름까지 감안해 보수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B등급 업체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기업신용평가 담당자는 "올해 B등급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에는 워크아웃에 들어 가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금호HT·무등·대호산업·신한포토닉스·에스디엠

글로벌 強小기업 선정

중기청 최대 6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30일 '글로벌 強小(強小)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업체 81개사를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선정 업체는 금호HT(대표 오홍식)·무등(대표 김국웅)·대호산업(대표 박종혁)·신한포토닉스(대표 주민)·에스디엠(조철연) 등 5개사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5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출 5000만달러 이상을 올리는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사업이다.

기술 경쟁력과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골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청은 강소기업 육성대상 업체를 2012년까지 모두 300개를 발

굴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81개 기업은 평균 연구개발 투자액이 11억9500만원, 기술인력이 7.7명, 기술인증 건수는 16.7건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 수출 규모는 163억원이며 수출 비중은 50.2%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 과제당 총 소요비용의 65% 이내에서 2년에 걸쳐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민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시 해당 기업들을 우선 편입해 무보증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의 민간금융 우대상품 적용대상에도 포함시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거나 현지 법인 설립 등을 돕고 유명 검색엔진에 회사명이 쉽게 검색되도록 하는 등 해외 마케팅도 지원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선 5기 지역경기 좋아질 것"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설문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역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중소기업(광주 68곳, 전남 5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광주는 응답 기업의 69.2%가, 전남은 50.0%가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역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

다했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5~6곳(광주 60.3%, 전남 51.9%)은 민선 4기에 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진력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광주 중소기업들은 '지역 금융지원 시스템 활성화'(36.1%)를, 전남은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개발'(46.1%)을 꼽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월 광공업생산 급증

5월들어 광주·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제조업 업황 전망은 6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지난달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5월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전월보다는 9.3% 각각 증가했다.

전기장비(40.2%), 기계장비(21.8%), 자동차(20.3%) 등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광주·전남지역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기준치 100)는 6개월 연속 기준치 아래에 머물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光銀 매각' 방안 발표 연기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 7월로 늦어져

광주·전남지역 상공인들이 인수를 추진중인 광주은행의 매각방안 등이 담긴 우리금융민영화 방침 발표가 7월 중순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 발표 시점에 대해 "7월 중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영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일부 위원의 해외 출장 등 일정이 맞지 않아 시간이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상반기까지 민영화 방안

을 발표할 것이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뒤 "결과적으로 최종스럽게 됐다"며 "우리금융 민영화는 원칙에 따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확한 민영화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특정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체적으로 우리금융의 조속한 민영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에 대해선 "어떤 형태든지 우리금융의 리더십을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만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환위기에 (금융회사 민영화와 관련해)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대로 된 것이 없다. 결국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698.29 (-9.47)
▲ 코스닥지수	489.98 (+2.44)
▲ 금리 (국고채 3년)	3.86% (-0.03)
▲ 원·달러 환율	1,222.20원 (+5.2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제발 멈추기만 해도 행복

마이닉실

마이닉실 임상결과

마이닉실

문의: 02-2500-3882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1, 마이닉실